

전주 첫마중길, 夜光으로 채색된다

(아광)

시, 11월 18일~내년 3월 15일까지 경관조명 설치... 이후 문화특별시 전주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조성된 전주역 앞 첫마중길이 야간에는 빛의 거리로 탈바꿈된다.

시는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18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첫마중길 850m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 빛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첫마중길을 빛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은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고, 야간에도 사람들이 찾는 거리로 만들어 역세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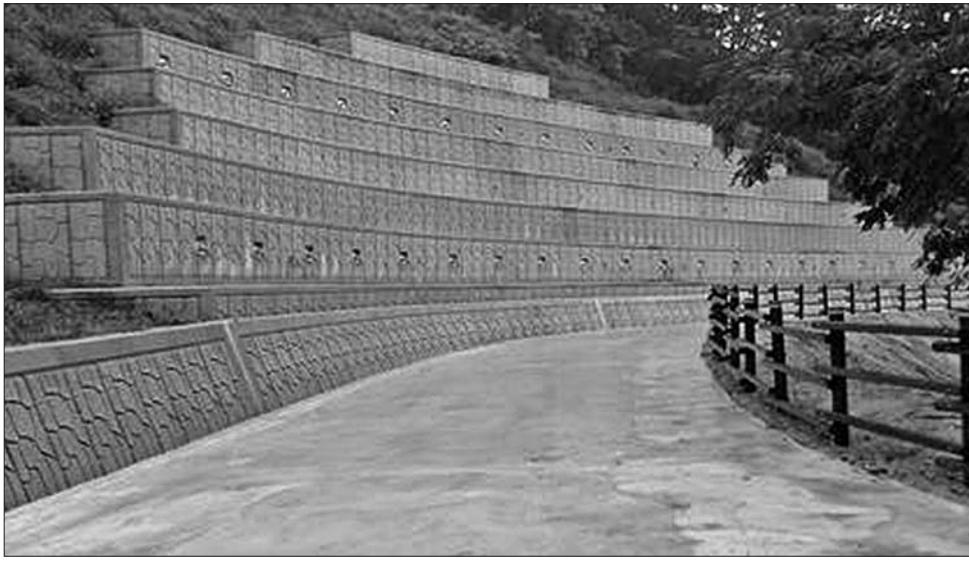
시는 첫마중길 빛의 거리를 관광객을 맞이하는 첫마중길의 이미지와 부합하면서 주변 시설물과 수목 등과 조화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첫마중길을 전주역 앞과 명주골사거리의 두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LED와 미디어파사드, 레이저 등을 활용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야간 경관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전주 첫마중길 빛의거리 설치운영 용역' 계약 입찰 공고를 내고, 경관조명 전시물 설치와 운영, 철거 등 빛의 거리 조성 관련 제반사항을 맡을 업체를 모집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참가 업체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라북도인 업체로 제한했다.

시는 이날 중 최종 참가 업체를 선정할 후 전주시 경관심의위원회 자문



안전 확보된 김제 금구 3지구 금경사지 봉괴위험지구 D등급 전북 김제시 금구 3지구 금경사지가 3년에 걸친 재해복구 예방사업을 통해 안전이 확보됐다. <사진=김제시청 제공>

등을 거쳐 내달 18일부터 빛의 거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의 얼굴이자 해마다 이용객이 급증하는 전주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인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동차로 가득해 삭막했던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를 기존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고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만든 첫마중길로 조성했다. 또, 차선을 줄인 공간에는 시민들이

편안한 시민회광나루로 가로숲이 조성되고 사람과 문화를 채울 수 있는 보행공간이 들어섰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첫마중길에 여름철 그늘을 제공하고 가로숲과의 조화, 마을 어귀에 고목이 있는 전통문화 등의 의미를 담고있는 상징고목인 팡나무(10~15m) 2그루를 식재하는 것을 끝으로 첫마중길 조성사업의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첫마중길에 문화와 예술을

가득 채워 문화특별시 전주의 품격을 뽐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첫마중길은 전주시의 상징 공간이다. 빛의 거리가 조성되면 야간에도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역 주변이 문화가 있어 사람이 모이는 등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명품 길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원대교수 2명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마취통증의학과 이철 교수 · 위장관외과 강동백 교수



이철 교수



강동백 교수

원광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자 마취통증의학과 이철 교수와 위장관외과 강동백 교수가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에 등재됐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저명인사와 탁월한 리더를 선정해 업적과 이력을 소개하는 인명사전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미국의 인명정보기관(ABI) 등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다.

이철 교수는 아편유사제와 관련된 내성 및 통각과민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2013 대한마취과학회 산업체학술상 수상, 2015년 대한마취과학회 학술대상을 수상한바 있고, 유명한 논문 사이트인 MDix에서 마취과학 분야 우수 논문에도 3회(2011, 2013, 2015년) 선정된 바 있다.

이철 교수는 식약처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 맞춤형 멘토

링 전문가 위원,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 위원, 국내외 저널들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병원 국제진료협력센터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강동백 교수는 위암의 복강경, 로봇수술 및 단일공 복강경수술 등의 미세집합수술과 비만대사수술에 관한 다양한 임상연구와 위암의 유전자 및 위장관종양의 생체표지자 관한 연구 활동으로 2017년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 KINGA WEEK 2017에서 최우수연구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대한위암학회 홍보위원회의 간사, 대한내시경복강경의과학회 기획위원, 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 운영위원,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섭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철 교수(마취통증의학과)와 강동백 교수(위장관외과) 전문분야가 각각 다르면서도 공동연구 등을 통해 동문수학의 인연을 이어왔다. /익산=장영원 기자

월세 들어간 원룸 가전제품 팔아버린 중국인 유학생 입건

월세로 들어간 원룸의 가전제품을 주인의 허락없이 판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11일 절도 혐의로 중국인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B(37,여)씨의 원룸을 임대하고 방안에 있던 TV와 세탁기 등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해 현금 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여학연수를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유학생으로 경찰에 "내 것인 줄 알았다"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변상하기로 했지만 절도죄에 해당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68년 납북어민 박춘환씨 간첩누명 벗어

전주지법, 고 오경태 · 허태근씨 등 납북어부 3명 재심 선고공판서 무죄 선고

지난 1968년 조 기잡이 중 납북돼 간첩누명 쓴 박춘환(71)씨가 49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관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와 고 오경태씨, 고 허태근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춘환씨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 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67년 5월 말 어선 영창호로 조업을 나갔다가 영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에 강제로 납북돼 4개월가량 억류됐다가 풀려나 이듬해 반공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돼 선장을 비롯해 선원 모두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1972년 박씨만 간첩 혐의로 다시 기소돼 갖은 협박과 고문에 못버티고 거짓자백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재심에서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와 별개로 이번에 반공법 등의 사건에서 고 오경태씨와 고 허태근씨와 함께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날 박씨는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이를 먹은 게 억울하다"며 "정부가 너무 야속하다"고 말했다. 이들을 변호한 이명준 변호사는 "1967년에서 70년 초반까지 처벌받은 납북어부만 1500여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무죄를 받은 사람은 채 10명이 안 된다"며 "영창호사건에 대해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도내 가축전염병 살처분지 280곳... 전국 2위

전북지역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조성지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돼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륙)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조성지 1250여 곳 중 전북지역이 280곳에 달한다. 이는 경기지역 305곳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치여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 280곳의 매몰지 중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조로 매립된 살처분 조성지가 205곳, 미생물매몰 39곳, 일반매몰 36곳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몰지에 대해 3년 동안 훼손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만 악취와 민원이 발생할 경우 매몰통과 인근 토양에 대한 철저한 바이러스 검사 후 소멸처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덕진 호성파출소, 청소년범죄예방·비행학생 선도활동 실시

덕진경찰서 호성파출소는 등하교 시간에 파켓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범죄예방 및 비행학생 선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호성중학교 학부모와 함께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금지 등을 홍보했다.

호성파출소 관계자는 "이와 병행해 동아아파트 주변과 농협 파크점 주변 등을 탄력순찰구역으로 등록하고 꾸준한 순찰해 관내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라면서 "청소년 범죄 우려지역을 설문조사하고, 순찰노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